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56 (팩스) 031-278-7035

배 포 일	2024. 9. 4.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경기문화재단 직원들 앞장 서 ESG 실천, 여름 휴가철 쌓인 해양 쓰레기 수거		2	1	www.ggcf.kr	부서 : 정책실 담당 : 서동빈 전화 : 031-231-7256

## 경기문화재단 직원들 앞장 서 ESG 실천, 여름 휴가철 쌓인 해양 쓰레기 수거 -임직원 참여 환경보호프로그램 '비치코밍' 성료-



△비치코밍에 참여한 경기문화재단 직원 모습

(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지난 4일, 대부도에서 재단 임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프로그램의 일환인 '비치코밍'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비치코밍(Beachcombing)은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기문화

재단의 환경보호 실천과 여름 휴가철 쌓인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가 위치한 대부도 해안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비치코밍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예술 작가와 협력한 업사이클링 문화예술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해변가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의 일환으로, 재단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핸즈온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유아용 수면조끼를 만들어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기부한 바 있다. 이처럼 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비치코밍 행사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